

## [목회자 모임] 단순한 복음

2018년 4월 20일 이현래 목사님

복음이라고 많이 말하는 복음은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다.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책을 표현하는 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 대책을 선전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은 무수히 대책들을 내 놓으셨다. 가령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이나 여자가 낳은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이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뜻이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다거나 또 신과 인간이 결합하여 네피림을 낳았는데, 그 시대에 노아를 불러서 인종을 보호했다는 것이 다 복음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바벨로만 가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이다. 이 불러낸 것이 복음이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아브라함처럼 바벨론에서 부름 받은 사람도 있고, 노아처럼 사용된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이 다 복음이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씨를 주겠다고 하여 이삭을 준 것이 복음이다. 우리도 다시 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작되는데, 또 그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동안 바로의 종이 되어버렸다. 꿈쩍 달싹할 수 없는 것이다. 어찌할 수 없는데 모세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구출해 내었다는 것이 복음이다.

광야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물이 나오지 않을 때, 반석을 깨서 물이 나오게 했다. 물을 마시게 했다.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다. 뱀에 물렸을 때 구리뱀을 주었다. 이런 것이 다 절망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다.

그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7족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웠다. 그렇지만 이 나라는 금방 망한다. 왜 망했는가? 그 이유를 말할 때,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우상을 숭배하여 망했다는 것이다. 순전히 하나님의 시각이다.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잘못해서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망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가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다고 해석하였다.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우상을 섬긴 결과 북왕조가 700년 뒤에 망하고, 남왕조가

500년 뒤에 망했다. 그런 후에 나온 대책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마 1:23).”,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사9:6).”고까지 불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또 “내 법을 그들의(저희) 생각에 두고 그들의(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히8:10).”는 이것이 구약 예언의 마지막 복음이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것이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복음이다. 구약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대책은 모두 이렇게 물질적이고 인간적이고 역사적인 대책들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로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신 것이 생명의 변화이다. 이것이 결국 신약으로 넘어온 것이다. 이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오늘날도 기독교는 여전히 구약시대의 복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전파하고 있다.

안 돼서 바꾼 것인데 단지 그것이 율법의 조항을 지키지 않아서 안 됐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속 생명이 근원적으로 잘못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준다고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이다. 병든 사람에게 아편을 놔주면 아픈 것은 없어지지만 병은 그대로 있다. 조금도 낫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였다.

### **신약은 사람의 생명을 바꾸는 대책이었다.**

신약의 서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마1:23).”라고 말한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실재)가 충만하더라(요1:14).”고 말한다.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온 것이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왔다는 말이다. 로마서를 보면 처음에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라고 시작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한다.

2장 3장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알만 해도 알지 않고 거부하고 다 헛길로 가고 피 흘리는데 빨랐다거나 여러 가지 말을 통해 인간은 절망적이라는 말을 한다.

하나님은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안 되는 상태이다. 4장에 가면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믿음을 제시하고 있다. 아브라함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깃발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해결이 되는가? 안 된다.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면 해결이 되는가? 사람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해결이 안 된다.

5장 6장으로 넘어가면 더 깊은 대책이 나온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것이 마지막 대책이

다.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산다.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는 그 절망적인 인간에 대한 대책이 안 된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귀가 닳도록 들어왔다. 설교의 모든 내용이 믿으라, 순종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똑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종교상태에서 다시 올라갈 수가 도저히 없다.

### **완전한 대책은 결국 죽고 다시 사는 이것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났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말이 애매하기 때문에 도로 도덕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고 말았다.

거듭난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3~16).”고 했다.

이 말씀을 더 부연하면 로마서 5장 6장이 된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함께 죽어야 함께 산다는 것이다. 죽지 않고서는 거듭나는 것이 없다.**

행위로 거듭날 수가 없고, 믿음으로도 거듭날 수가 없다. 옛날에는 믿음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나는 안 되었다. 속으로 믿음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났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은 것이 거듭난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거듭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시 난 것이니까. **최종적인 복음은 우리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행위나 종교적인 믿음, 이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구약의 복음에는 한계가 있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신약의 예언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완성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기만 한다면 간단한 문제이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명이 되고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된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다.

이것을 요한은 예수를 보고 그렇게 말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요1:14).”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완성이 되었다는 뜻이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것을 믿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 라고 믿었다. 예수님이 성육신은 하셨지만 나와는 관계가 없다. 성육신은 혼자 하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바라 보고 경배하고 믿고 이런 것밖에는 안 된 셈이다.

**그것이 예수님 삶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분배되었다.** 성육신 하신 분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신인지 인간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가 되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거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다거나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시니까 사람들은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라고 제자들은 믿었다. 저런 사람이라면 로마의 시저가 문제가 되겠는가? 저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시저를 때려눕히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사람을 다시 나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예수님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구속에 있다. 사람을 어떻게 하면 원위치로 다시 돌려내느냐가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 있다.**

물위를 걷어가는 것도 중심이 아니고,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인 것도 중심이 아니다. 중심은 사람을 제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이탈했던 인간을 인간으로 되돌려놓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사람들은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에서 배우자고 하여 수양을 하고 있다.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자연과 동화하고 자연에서 이치를 배우고 깨달아서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도사람들은 사람이 초월하려고 생각했다. 힌두교도 이 땅에는 완전한 것이 없다. 죽은 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인도사람들이다. 그래서 죽는 것도 아주 즐겁게 죽는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사후세계이다.

죽기 전에 우리의 고려장처럼 어디로 가는 곳이 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면 거기서 그냥 굶어 죽는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지혜로운 일이라고 그 사람들은 믿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동안은 운명론에 잡혀서 정해진 운명 대로 살아야 된다고 해서宿命론이 나오게 되었다. 4가지 계급으로 갈라서 그렇게 살아왔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온 불교는 비슷한데 조금 다르다. 죽은 후가 아니라 지금 해탈하여 초월하자는 것이다. 사람의 정도에서 초월하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탈이다.

예를 들어 사람이 천사가 된다면 이탈이지 잘된 것이 아니다. 망하는 것이다. 네피림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들을 가리켜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창6:2).”** 그들에게서 자녀가 나니까 그들이 네피림이었더라는 것이다.

사람 되는 것이 사람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해탈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은 보잘 것이 없고 희망이 없다. 인간의 어떤 탈을 벗어나서 굴레를 벗어나서 운명을 벗어나서 우주 안에서 완전히 우주를 마음대로 생각하는 자유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 관념론이다.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어차피 도로 죽을 것이다. 무중력 상태에 살다가 떨어지면 죽는다. 인공위성이 우주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떨어진다. 사람도 만일 해탈하여 무중력 상태로 간다면 거기서 얼마나 있겠는가? 결국 도로 떨어지면 사람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책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이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대책은 그것이 아니고, 한 사람 예수 안에서 사람을 원위치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왔다고 했다.**

**우리가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불의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된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는가? 그분과 합하여 그 안에서 내가 그분이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구속이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구속을 예수를 믿는 것을 대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주시다. 우리 죄를 다 덮어주고 씻어주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속량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어떠함을 누리는 것이 속량이다.

내가 따로 구속이라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우리 구속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고전1:30).”**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그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내가 어떻게 그분 안에 있는가?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방법이 없다.

지금 사랑방에는 예수께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시끄럽다. 다 자기만큼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다 비슷하고 잘 맞춰져 가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엇박자가 나온다. 너무 간단한 일인데 이상하게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계속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면 좀 쉽게 받아들일 지도 모른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어서 뭘 많이 먹어놓으니까 죽었는데도 죽었다고 할 수가 없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그랬던 것 같다.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책을 보면 알겠지만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사람이냐고 하셨다. 떡으로 사는 것은 짐승도 다 한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라고 한다고 내가 강의할 때 말했는데, 뭔가 조금 부족했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다는 이 말을 막 하기가 꺼림직했다. 그때도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분명하게 밝히기가 조금 어색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왜 소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니까 소다. 개는 왜 개인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지 않으니까 개다. 개나 소처럼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산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해석했다. 뭔가 좀 부족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자리에 와서 아~ 뛰어내리지 못하는구나. 뛰어내릴 수가 없구나.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되었다. 뛰어내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고, 뛰어내릴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다. 사람이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말고 할 것이 없지 않은가? 나와 똑 같은 사람이라면 뭣하러 믿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차별화시키려고 생각한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인다고 하면 내가 믿을 가치가 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면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런데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가 피하고 싶은 것이다.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다. 만일 그것이 없어진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

던 모든 것이 대상이 없어져 버린다.

마치 제자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고 다 원점으로 돌아가버린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 왔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 분으로 믿고 따라 왔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으로 믿고 따라 왔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뛰어내리지 못한다면 뭘 믿겠는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

여기서 믿음의 한계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람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뛰어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안에 진실한 사람이 있다. 우리가 바라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찾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버려버린 사람, 내가 싫어했던 사람, 그래도 그 사람을 내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이다. 그 운명을 거역하기 위해서다.

천사와 비교해 볼 때, 천사는 그렇지 않는데 사람은 제한되어 딱 막힌다. 이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이것을 벗어나 보려고 사탄의 말을 들은 것이다. 만일 우리도 인간의 운명을 벗어나 다른 길이 있다면 뭘 주고 못 바꾸겠는가?

이\*철씨가 그 많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죽기를 원하겠는가? 아니면 그것을 다 버리고라도 사는 길을 원하겠는가? 아담이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었는가? 왜 불순종을 했던 것인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도저히 없다. 우리가 아담보다 못한 사람이 지 아담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다. 아담은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자다. 우리 속에는 다 그런 아담이 들어있다.

십자가를 바라 볼 때, 보면 볼수록 저 사람이 누구인가? 알고 보니까 사실은 <나>인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나>다. 저렇게는 안 됐으면 했던 사람이다. 다른 것은 다 하더라도 저것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이다.

불교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나를 찾아 떠나는 길인데 평생을 자기를 찾는다.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는 자기 자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찾는 것이 아니다. 어디 가서 찾겠는가?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나를 찾아 떠나는 길, 자기를 찾아 떠났으면 도로 자기이지 다른 것이 있겠는가?

나는 인간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을 내가 시인하고 이 사람이 나다. 내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한 인생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없다. 하나님의 어떤 대책도 대책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그 대책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내 위치를 버렸는데 뭐가 대책이 되겠는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을 잘못 생각하면 누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는가? 그것을 조금 바꾸어서 저 사람 같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한 일이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저 사람 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모든 인간의 소원이다.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

너 하나님 같이 되려고 먹었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 같이 되려고 먹었느냐? 이렇게 할 사람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저 사람 같이 안 되고 싶다는 생각은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이다. 그 사람같이 한다면 예수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을 전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을 전하면 누가 그 사람을 믿겠는가? 그래서 물위로 걸어난 분을 전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람을 전한다.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이라고 전한다. 그러면 내가 당당해진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신 분이 내 주님이라고 하면 내가 당당하다.

그것을 믿게 하려고 애를 쓴다. 믿으라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성경을 내놓고 보라, 이 사람은 이렇게 믿어서 복을 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믿어서 복을 받았다고 한다.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신앙을 할 텐데,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다. 어쩌면 내가 저 주하던 사람이다.

제자들이 오죽하면 떠났겠는가? 죽을지라도 부인하지 않겠다던 사람이 어쩌서 그렇게 떠났겠는가? 그 사람이 의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로 확신만 생겼으면 목숨도 같이 버릴 사람이다.

내가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데도 같이 가겠다고 했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다. 베드로는 진실한 사람이다.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도저히 안 돼서 떠난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의 구속자이다. 이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거기에 내 진실이 있다. 물위를 걸어난 분 안에서는 나를 찾을 수가 없다. 거기는 내가 없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인 자리에 가면 나는 거기에 없다. 아무리 믿어도 없다. 아무리 충성해도 거기는 나는 없다.

예수님 홀로 있지 나는 없다. 그러니 어찌 연합이 되겠는가? 아무리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다 헛일이다. 가까이 되지가 않는다.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가까이 되겠는가?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그 자리가 아니면 하나될 자리가 없다. 전 성경에서 그 자리



가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를 만날 자리가 없다.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다.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버리고 갈 수도 없고, 예수를 믿자니 비참하다. 오갈 데가 없다.

제자들이 얼마나 낙망하였겠는가? 그 동네에서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너희들은 뭣하고 다녔느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대답할 말도 없고 어이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안에 우리의 진실이 있고, 그 안에 참 내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었다. 우리는 원래 만들어질 때 모든 것을 갖추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지어졌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1:31).”**고 하셨다.

제품을 만들어놓고 심히 좋다고 하는데, 왜 고장인가? 사람은 불완전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지어졌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불완전하게 지을 필요가 없다. 불완전하게 지어서 평생 하나님 원망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불완전하겠는가? 절대로 불완전하지 않다.

나도 옛날에는 인간은 왜 이렇게 불완전한가? 이것이 숙제였다. 이것만 좀 완전하게 해주었으면 좋을 텐데 왜 이것이 안 되는가? 사람마다 안 되는 것이 다 있다. 마지막에 죽는 것은 누구든지 안 되지만 그 외에도 사람이 안 되는 것이 있다.

수도를 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걸리는 문제가 있다. 이것 좀 완전하게 만들어주지 왜 이렇게 불완전하게 만들어놓았는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뒤로 안 것인데 성경을 보니까 전혀 불완전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되어있다.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 용도에는 딱 맞는다는 말이다.

우리 용도에는 맞지 않는다. 내가 나를 사용하는 데는 맞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든 피조물로서는 완전하다는 말이다. 그쪽으로 생각을 돌리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나에게는 불편하지만 하나님 쓰시기에는 맞다는 말이구나. 다 경험해 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되었다. 그렇지, 내가 나를 쓰려고 하면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쓰려면 불완전하지 않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그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편해진다. 불완전한 것은 나한테 불완전 것이지 하나님께 불완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께 쓰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얼마나 인생이 불편한가? 잘 될 때는 좋지만 안 될 때는 정말 답답한 일이다.

해석되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사람에게 일어난 문제를 사람이 다 해석할 수 있는가? 다 못한다. 답이 없다.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답을 해주려고 하면 정말 어렵다. 어떻게 답을 해주겠는가? 하나님 용도에 맞추면 되는데, 하나님 용도에 맞추지 않고 자기 용도에 맞추어 와서 절망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목사님들께서는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는가? 그냥 위로해 준다고 이 말 저 말 하지만 그것이 진짜 위로가 안 된다. 아픈 사람이 와서 말하면 고통은 좀 참으면 된다거나 더 아픈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간 사람은 자기가 아파 보지 않았으니까 저런다고 생각한다.

목사님들, 위로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효과가 없다. 속으로는 자기 일이 아니니까 저런다고 생각한다. 다 그렇다. 자식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도 뭐라고 위로를 한다. 그러면 지 자식이 그러면 그렇지 않을 텐데 하고 속으로 생각한다. 맨날 말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대답하신 대답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가? 안 듣는다. 그러면 굶아 터질 때까지 놔두고 보는 수밖에 없다. 안 됐지만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하나님이 이런 데 쓸 수 있다는 말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어느 시간엔가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인간적인 것은 위로가 안 된다. 망한 사람 앞에 가서 위로해 보라. 위로가 되는가? 돈이라도 한 뭉치 가지고 가서 위로하면 모르겠지만 돈도 없이 가서 위로해보았자 위로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망했을 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해 보았자 뻔하기 때문이다. 돈 줄 것도 아니고 나만 창피할 일이기 때문에 한번도 괴로운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을 왜 하겠는가? 실패하고 나서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못해보았다. 해 보았자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 내가 잘못해서 실패를 했든지 재수가 없어서 실패를 했든지 그 이야기를 한다고 누가 어떻게 나를 위로 하겠는가?

사람은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다. 같이 죽을 수도 없고 같이 아플 수도 없다. 부모라도 자식과 함께 아플 수가 없다. 내가 오랫동안 병치레를 하니깐 나밖에 없는 어머니인데도 마지막에는 한숨을 짓더라. 같이 죽을 수가 없다. 아무리 어찌고 저찌고 해도 같이 죽을 수가

없다.

사람의 대답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사람의 대책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대책만이 해결이 된다.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대책만 해결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복음, 마지막 선물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3:16).”라고 한다. 더 없다. 아들이 더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아들에게서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면 더 이상 복음은 없다. 히브리서가 말한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히 1:1~2).”라고 했다. 아들로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이라고 했다. 아들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산상복음인가?

어떤 사람은 아들로 말한 것이 예수님의 가치를 산상복음에 두고 있다. 유명한 성서학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산상복음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공자사상이나 불교사상을 알면 그런 소리를 못한다. 더 심오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다.**

어디에서 그 마지막 주신 선물이 가치가 있는가? 그가 우리 대신 죽었다는 것에 가치가 있다. 내가 죽어도 안 될 일을 그가 죽으심으로써 내가 내 인생을 찾았다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거기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것을 해석할 때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고 해석한다.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 받기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었는지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죽으심 안에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진실을 주고 있다.

내가 이분을 알고 하루를 살아도, 모르고 천 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 내가 평생을 살아도 거짓으로 산 것이다. 이분을 모르고 인생을 살았다면 천년을 살아도 헛 살은 것이다. 내가 거짓을 먹고 산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산 것이다.

이분을 알고 사는 것이 하루를 살아도 사람으로 사는 길이다. 하나님 아들이로서 자격이 있었지만 칭송을 받을 만 하지만 죽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되니까 죽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아담이 희망했던 그 사람, 네가 신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지만 예수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고, 생명과를 먹

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었다.

세상에서 하나님 같은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 시저를 보고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 회랍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 유명한 시인을 보고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 장군을 보고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

중국사람들도 아주 유명한 사람을 보고 신이라고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개념과는 영 다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된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다. 이유가 다르다.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히1:3).”**고 드러나신 분이다. 그래도 사람이다. 하지만 사람이다.

우리는 당연히 죽을 사람이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분이 죽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죽는가?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영지주의와 같은 사상이 나온 것도 다 이유가 있다.

그 안에 인간의 진실이 있다. 참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만일 참된 사람이라면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같이 되려는 사람도 가짜일 수 있다. 도를 통해서 하나님 같은 사람도 가짜일 수가 있다.

**우리를 구속하신 분은 유일한 분이다.**

수양을 해서 인생을 바로 살려고 하면 공자님을 찾아가야 되고, 초월해서 인생을 해탈하고 싶으면 부처님을 찾아가면 된다. 내가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은 원래의 사람으로 돌아가려면 꼭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석가모니 보다 더 지혜로운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공자님 보다 더 인륜도덕이 높으신 분도 아니다. 오직 그분의 유일한 것은 그가 우리를 구속하는 분이라는 것이 유일한 일이다.

**예수님 사역의 유일한 초점은 바로 구속에 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분이 무엇을 가르쳐주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를 대신하고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 뛰어내릴 수 없는 나를 대신하고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마지막 복음이다. 예수 안에 있는 최종적인 복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가 복귀하는 일이다. 하나님 창조 목적 안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일이다. 복귀라고 할 수도 있고, 회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귀환이라고 할 수도 있다. 환원이라고 할 수도 있**

다.

하나님이 창조한 자리로 가야 하나님이 있을 것 아니겠는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는 한 있을 수가 없다.

###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내가 그분과 연합해서 저분 안에 내가 있구나.**

내 안에서 나를 찾아도 진실한 내가 없었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모른다. 그런데 저분 안에 보니까 내가 있다. 확실한 내가 있다. 변경될 수 없는 내가 그분 안에 있다. 이제는 나를 살필 필요가 없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분이 나다.

예수 안에 내가 있다. 그것이 나라는 뜻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요17:21).”,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요14: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요14:20).”고 말한다.

어디서 그것을 알겠는가? 오순절파 사람들은 오순절에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속에 우리가 그분과 하나인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아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안에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또 신비 속에서 내가 그분과 하나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 속는 일이다. 그것은 은사에 불과하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보여진 나는 진실이다. 더 이상 거짓이 없다. 교만도 없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다. 그분의 어떤 위대함 속에 있다면 내가 교만함을 가질 수 있지만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 속에 내가 있는데, 그것이 왜 교만인가? 그 안에 내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안식이 된다. 내 안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할 때 주님을 찾으려고 할 때는 아무리 해도 부족한 점이 있고, 불완전한 점이 있다.

그런데 그분 안에서 나를 찾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혹시 내가 결함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들어가면 다 없어져 버린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분을 나로 인정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다. 나는 더 이상 없다.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다. 그분 안에 내가 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요14:20).” 이보다 더 완전한 계시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이지 내가 따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겠는가?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 내가 따로 일어나겠는가? 그분 안에서 밖에 일어날 수가 없다.

인류 역사상 아직은 예수 한 사람밖에 부활한 일이 없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모든 잠자던 자가 다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계22:20).”** 어서 오시옵소서. 그냥 그 말이 저절로 나온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계22:20).”** 그분이 오시면 환히 다 밝혀질 것 같다.

그분이 조금만 다가 와도 우리가 이렇게 밝아지는데, 만민 앞에 나타나게 된다면 세상이 얼마나 밝은 세상이 되겠는가?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있는 곳을 알아야 되겠고, 이것을 다른 사람 앞에 전해야 된다.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창3:9).”**고 했을 때,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3:10).”**라고 대답했다. 우리가 다 그랬다. 율법 안에 있어도 두려워 숨게 되고, 양심 안에 있어도 두려워 숨게 되고, 믿음 안에 있어도 역시 두려워 숨게 된다.

옛날에 장로교인들이 하던 말이 맞다. 구원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당 갈 자신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서 올라미에 탁 걸린 것이다.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넘어갔다. 그것 때문에 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사실 모른다는 말이 맞았다. 안다는 것이 거짓말이었다.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는가? 내가 어디 있는 사람인지를 몰랐다.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창3:9).”**고 하면 자기 주소를 말할 수 없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창3:9).”**고 물으면 **‘예,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길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 교회장로인데 어디서 내 이야기를 들었는지 나한테 ‘목사님은 내 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하고 물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으면 된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렇게 헤어졌는데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그때는 내가 확실하게 모르고 한 말이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천당을 가나 지옥에 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잘 모르고 한 말이다. 지금은 확실하게 말 할 수 있다.

지금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그때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명백하게 할 수 없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지 내가 본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봤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 안에 내가 있으니까 당당하게 말하게 된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100번을 물어봐도 마찬가지이고 1000번을 물어봐도 똑같은 말을 할 것이다.

검찰에 불려가서 취조를 받으면 그런다고 한다. 때리고 고문하고 이런 것을 잘 못하니까 계속 같은 말을 반복 질문하는 것이다. 열 시간씩 앉혀놓고, 심지어는 열다섯 시간, 열아홉 시간까지 하고 나왔다는 사람이 있다.

열 아홉 시간을 무엇을 하겠는가? 교대해 가면서 같은 말을 똑 같은 말은 묻는 것이다. 자기는 한 시간 묻고 가지만 듣는 사람은 열아홉 시간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지켜워서 맨 마지막에는 될 대로 되라 하고 말하는 것이다. 고문이다. 알고 보면 고문이지만 고문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하루 종일 물어봐도 대답을 하겠다. 내가 믿음으로 한 것 같으면 대답을 못 한다. 믿음이 계속 그렇게 있겠는가?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를 수도 있고 밤중이 되면 또 다를 수 있다. 사람이 피곤해지면 잠이 오기 시작하면 만사가 귀찮아진다.

아이들이 잘 놀다가 떼를 쓰고 우는 애들이 있다. 잠이 오면 그런다. 어른도 마찬가지이다. 잠이 오면 만사가 귀찮다. 오죽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잠이 와서 죽는다. 잠을 안 재우고 눈앞에 전기 불을 켜놓고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해보라.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다.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누구요?’ 그렇게 물을 것이다. ‘당신은 누구인데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물을 것이다. ‘왜 당신은 그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물을 것이다.

우리가 엉뚱한 얘기를 하면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말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구원에 관한 이유를 묻은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온유함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한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물을지 모른다. 엉뚱하게 물을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내 위치가 확실치 않으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다.

**마지막 복음! 복음의 크리스탈, 결정체! 그것이 그의 마지막에서 드러났다. 최후에서 드러났다.**

이 자리를 놓쳐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일이 되고 만다. 가장 중요한 자리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헛일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다른 것만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

랑이니 은혜니 이런 것만 전하고 마는 것이다. 우리 구속을 위해서 오신 분을 놓쳐버리고 만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구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과 내가 연합한 삶이 새 생명이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롬6:4).”**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것처럼 오늘 예수님에게는 새 생명인 우리를 준 것이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지나서 이삭을 주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을 주었는가? 새 생명을 가져왔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새 생명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죽은 일이 헛일이 되어버린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게 되어버린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갈3:1).”** 그것이다. 여기서 사탄은 마지막 공작을 하는데 어찌하든지 이 자리를 감추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점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한다. 원점으로 되돌아가봐야 사탄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내가 원 자리로 가봐야 사탄이 나를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 알 수 있다.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봐야 사탄이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 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봐야 사탄이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이것이 얼마나 큰 거짓말인지 모른다.

감사합니다.